

새로운 시도로 건설업계 선도하는 GS건설 자이

GS건설 자이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잇따라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분양소식 알림, 브랜드채널 운영, 주거형태 및 외관 차별화 등 그간 건설업계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전에 임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 브랜드 채널 ‘자이TV’의 활성화에 힘쓰면서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 건설업계 최초로 유튜브 실버버튼을 수여받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꿈을 담아
자이가 더 가치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XIAN *vie*

건설업계 최초 커뮤니티 서비스브랜드/
자이의 새로운 모바일 통합 앱기반 서비스

‘VIE’는 ‘삶’, ‘생활’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커뮤니티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다채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커뮤니티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스타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 www.xi.co.kr / 고객센터 : 1577-4254



업계 최초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론칭

GS건설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고객이 특별한 삶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늘 새로운 형식의 주거 공간을 제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선보이며 주거 브랜드를 넘어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자이는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끊임없이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말,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를 론칭했다. XIAN vie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XIAN’과 ‘삶’, ‘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ie’의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 자이의 고객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 경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단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생활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에서 컨시어지나 조식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를 선보인 경우는 있지만 별도의 서비스 브랜드로 론칭한 것은 업계 최초이다. XIAN vie는 생활 주기 플랫폼(Life Time Platform)이라는 컨셉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거 반포자이가 국내 커뮤니티의 새 장을 열었던 것처럼, XIAN vie가 아파트 커뮤니티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 리더의 역할도 이뤄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자이는 유튜브 자사채널인 ‘자이TV’를 개설해 고객과 소통에 나섰다. 업계 최초 건본주택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고객과 소통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초에는 브랜드 웹 매거진 ‘비온드 아파트먼트’를 오픈하며, 2002년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266개 단지 24만 세대의 입주 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자이 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이는 프리미엄브랜드로 국내 주택시장을 리드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브랜드 역량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명실공히 주거문화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CEO INTERVIEW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언제나 국내 주거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기에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아닌,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과 디자인을 상품개발의 핵심 화두로 설정하며, 편리성과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철저한 시공을 통해 국내 주택시장을 리드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이의 역량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명실공히 명품 주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